

축하공연3_ 희망오미리

꽃분씨의 홀로서기

***제목 :** 꽃분씨의 홀로서기

***주제 :** 동행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걸어가는 길에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내용 :** 시각장애인 꽃분씨는 온실 속 화초처럼 산다. 가족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마라톤에 나가기로 하고...

매사 염세적인 양봉씨는 꽃분씨의 마라톤 멘토다. 둘은 처음부터 삐걱거리는데 일상의 연습에서 오해를 풀고 대회에 나간다 꽃분씨는 홀로서기 성공할까?

*나오는 사람들

순번	출연자	역할1	역할2	역할3	역할4	Pin Mic No.
1	이금희	해설				Pin 1
2	최원선	기타/노래				Pin 2
3	김월랑	꽃분씨				Pin 3
4	김광렬	양봉씨				Pin 4
5	정대완	동생	대완(멘토)	술꾼2		Pin 5
6	안지숙	엄마	지숙			Pin 6
7	장옥자	조카	옥자(멘토)			Pin 7
8	이상동	상동	술꾼1			Pin 8
9	박성민	복지사				Pin 9

*음원+영상+무대장치

사용음원수: 1개

사용영상수: PPT1(인간극장메인), PPT2(마라톤 오리엔테이션프랜), PPT3(마라톤대회프랜)

무대장치: 배우석 의자 6개, 무대의자 7개, 테이블1개, 기타 스피커연결선

축하공연3_ 희망오미리_꽃분씨의 홀로서기 (대본)

인간극장 인트로 음악과 함께

PPT1.영상자막(영상)

1. 1부

해 설 제 1부 꽃분씨의 홀로서기-온실 속 화초
오늘 아침 뭔가 분주한데 꽃분씨만 가운데서 고요하다.

엄 마 어디가 어디가?

꽃 분 아니 그냥 쓰레기 버리려고

엄 마 넌 가만 있어 엄마가 버려줄게

해 설 꽃분씨 이번엔 다리를 움직여 스트레칭을 하려는데

동 생 뭐뭐뭐?

꽃 분 그냥 좀 빠근해서...

동 생 내가 주물러줄게 가만있어

해 설 꽃분씨 핸드폰을 들어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하려는데

엄마동생 왜왜왜 우리가 다 해준다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해줄게

넘어질까 부딪힐까 조마조마 불안해 헛갈리게 서 있지만

꽃분아 너는 소파에서 푹 쉬어 우리 품에 등지를 틀어줘

꽃 분 가족들이 왜 저러냐구요? 제가 몸이 좀 약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시각장애 인이에요. 가족들이 절 온실 속 화초처럼 대하네요. 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핸드폰 만지작)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해 설 꽃분씨가 쇼파에서 심심한데 가족들 주방에서 조카의 재롱에 웃음이 한창이다

꽃 분 뭐야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나도 같이 해.

가족들 아냐 아무것도 아냐.

꽃 분 미리야 고모한테 와봐

미 리 왜 고모?

꽃 분 뭐야?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미 리 어 그거?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춤 봤어

꽃 분 정말 어떻게 봤는데? 고모도 보여줘

미 리 싫어. 고모 보지도 못하는데 뭐. 재미없어

해 설 조카는 꽃분씨에게 모진 말을 한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꽃분씨 조카의 말에
 맘이 아프다 이때 복지관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꽃 분 어? 여보세요 마라톤이요? 아뇨 안할래요 자신없어요. 네? 그럼 생각해보고 다음주에 말
 씬드릴게요. 네.

미 리 고모 무슨 전화야?

꽃 분 음 장애인 마라톤대회가 있다구 해서 고모 생각해 본다구 했어

미 리 (놀라며) 고모 할거야?

꽃 분 글썄.... 어떡할까? 할까, 하지말까?

미 리 아빠, 할머니! 고모 마라톤 나간대

꽃 분 미리야 그게 아니고 생각....

엄마 동생이 다가온다.

엄 마 애 무슨 마라톤이야? 위험해 니가 어떻게 해?

꽃 분 그거야 복지관에서 가능하게 도와주겠지.

동 생 사서 고생이야 누나. 하지만

미 리 고모 못해?

엄/동 당연히 못하지

꽃 분 왜? 내가 왜 못해 나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엄/동 꽃분아/누나

미 리 고모 파이팅

인간극장 음악

2. 2부

해 설 2부. 꽃분씨의 홀로서기-나혼자 양봉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던 꽃분씨는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마라톤 신청을 하고 이
 른 아침 여기는 어딘고 하니 양봉씨 집이다.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목욕을 하고 나오
 는 사람.... 양봉씨다

양 봉 (음악에 맞춰 흥얼) 나혼자 밥을 먹고 나혼자 옷을 입고 나혼자 티비보고 이렇게 매일
 혼자 올고..... 핸드폰이 어딴냐? 여깁다 아야야야!

해 설 핸드폰을 잡으려다 물건을 밟고 만 양봉씨다

양 봉 여보세요? 뭐? 정해졌어? 10키로? 가서 보고 결정할게 그래 고맙다.

해 설 어째 양봉씨의 표정이 어둡다.

양 봉 장애인 마라톤 멘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가 원래 육상선수였거든요. 부상으로 그
 만두긴 했는데, 비가 오려나 오늘따라 다리가 더 아프네요. 가보고 결정해야죠. 나가보

자.

해 설 양봉씨는 마지못해 나가보기로 한다.

양봉이 자리를 움직이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등장한다. **전환음악**

PPT2(마라톤 오리엔테이션)

복지관에 도착해보니 장애인 마라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붙어있다. 하나둘씩 등장해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는다.

해 설 복지관에 도착한 양봉씨. 사람들이 모여있어 뽀죌하다 얼른 자리를 찾아 앉는데 꽃분씨 옆자리다. 앉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양봉씨.

양 봉 어! 난데 오리엔테이션 이야기는 안했잖아. 나 자신 없는데 내가 무슨 멘토를 해 그리고 무슨 시각장애들이 마라톤을 한다고 별....

꽃 분 저기요?

양 봉 뭐요?

꽃 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듣는 시각장애인 맘 상하게....

No1. 녹음 -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근데 이사람 뭐야? 무슨 사람이 말을 저렇게...

양 봉 뭐요??

꽃 분 아니에요

사회자 자! 다 모이셨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들 나누세요. 지금 옆에 앉아계신 분이 자신의 파트너입니다

해 설 꽃분과 양봉 서로 바라보고 놀란다.

꽃/양 앵? (손을 들고) 저기요 바꿔주심 안돼요?

해 설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놀란다.

인간극장 음악

3. 3부

해 설 3부.꽃분씨의 홀로서기-파트너

홀로서기에 진심인 꽃분씨는 마라톤에 도전하고. 꽃분씨와 양봉씨는 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 첫 연습부터 표정이 영....

대 완 핫들 핫들 지속씨 자 봐요 그렇죠 그렇게 어우 잘하는데요. 이거이거 우리 이러다 1등 하는거 아닙니까?

지 속 1등은요. 완주하는게 목푼데요 전

대 완 아니아니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등 파이팅

상 동 파이팅! 옥자샘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루에 1키로씩 늘려서 10일에 10키로 찍고 시간도

하루에 1분씩만 단축해서 10일에 10분 단축 그럼 우리 1등 하겠죠?
옥 자 네? 우선 완주를 목표로 천천히 해봐요 우리
상 동 무슨 소리 칼을 뽑았으면 단무지라도 썰어야지요. 무조건 1등입니다.
옥 자 좋아요 이왕이면 꿈은 크면 좋죠 파이팅!
다같이 우리 최고의 파트너

일년 삼백육십오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해 설 다른 팀들은 손발도 척척. 그를 지켜보는 양봉씨 초조한 마음 한스푼이 들며 슬슬 짜증
이 올라온다.

양 봉 자! 우리도 해보자구요 이렇게 손을 올리고

꽃 분 저기...

양 봉 자 따라해 봐요 손을 올리고

꽃 분 저기...

양 봉 (짜증 한숨) 뭐요 뭐뭐? 말을 해요 말을

꽃 분 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 완 거 참! 손을 잡고 알려줘야죠

옥 자 이렇게 알려 주시면 돼요

양 봉 (민망해서) 거 나도 알아요 알아. 잠깐 깜빡 한겁니다.

해 설 민망한 양봉씨다.

양 봉 자 여기 잡으시고....

꽃 분 이렇게요.

양 봉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해 설 처음부터 계속 빼거덕거리는 꽃분씨와 양봉씨! 이를 지켜보는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
다.

선생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님 기록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상동님 계획한대로
기록이 나오고 있으신거죠?

상 봉 예! 그럭저럭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들 이렇게만 하시면 이거이거 한국체전에도 나갈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계속 분발하시고
꽃분, 양봉님은 좀 남으시겠어요?

해 설 다들 웃음꽃이 만발해 퇴장하는데 남으라는 선생님 말에 두사람은 긴장한다.

선생님 저... 두분 이렇게 기록이 안 나오면 시합에 아예 출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꽃 분 예? 다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신청이 많아서요. 안전상의 문제로 사전 기록으로 나가는 팀 인원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잘 준비해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꽃/양 네?!

해 설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선생님 꽃분씨와 양봉씨 놀란 표정이 역력하다.
 양 봉 아~~ 씨! 귀찮게...
 꽃 분 어떡해요? 저희 연습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 봉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뭐
 꽃 분 안돼요! 저 꼭 나가야해요.
 양 봉 아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요? 알았어요 이상한 데 목숨 거는 스타일이네.
 꽃 분 연습 언제 해요?
 양 봉 그럼 내일 오후 6시 수봉공원 폭포 앞에서 봐요.
 해 설 일방적으로 약속시간을 정하고 나가버리는 양봉씨. 그런데 꽃분씨 당황한 표정이다.

인간극장 음악

4. 4부

해 설 4부 꽃분씨의 홀로서기
 본 대회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별도연습을하기로 한다. 그런데 두사람 서로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꽃 분 활동지원사언니요? 갔어요. 언니 안되는 시간인데 저땀에 여기 데려다 주느라...
 양 봉 아이씨 왜 안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째 안오네요 참 나
 꽃 분 그게 제가 잘 못해서 잡은 연습이라 제 시간에 맞추자고 못하겠더라고요.
 양 봉 뭐가 그리 간절한지, 꼭 나가야한데서 일부러 사람 땀한 시간으로 잡은거거든요.
 꽃 분 전화가 안되네요. 혼자 연습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양 봉 왜 이렇게 안와? 아 짜증나네 그냥 갈까봐요.
 해 설 양봉씨 그냥 가려 한다. 그 때 저쪽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꽃분씨다.
 술꾼1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술꾼2 보면 모르냐? 운동하잖아 운동
 술꾼1 거 빨 살도 없어 보이는구만 뭘 운동?
 술꾼2 살은 우리 마누라가 빼야지 ㅋㅋㅋ
 술꾼1 어? 근데 아가씨 좀 이상하네 앞이 안보이나?
 술꾼2 옹? 예고 이런... 내가 도와 줄게 이리와봐요.
 꽃 분 아니.. 됐어요
 양 봉 어? 뭐야? 꽃분씨 아냐? 에이 씨! 꽃분씨 거기서 뭐해? 당신들 뭐야?
 술꾼1 어? 뭐야? 아가씨 아는 사람이야?
 술꾼2 당신 뭐야? 뭔데 끼어들어?
 양 봉 나? 나... 이사람 어... 남편이다.
 술꾼1 남편? (도망간다)

해 설 더듬어 양봉씨의 팔을 잡는 꽃분씨.
 꽃 분 고마...워요
 양 봉 아니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도 않더니 여기서...아니 활동지원사 샘도 없네. 여자가 겁도 없이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만
 꽃 분 뭐하긴요 기다렸죠 자기 맘대로 시간정하고 앞도 보이는 사람이 나도 못찾고 전화도 안 받고 영영
 해 설 꽃분씨가 울자 당황한 양봉씨다.
 양 봉 아니... 저... 그게... 울지마요.... 사람들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의식)
 꽃 분 보라고 해요!!! 영영
 양 봉 네? 네. 우세요 그럼
 꽃 분 안 울어요
 해 설 눈물을 닦고 일어선 꽃분씨
 꽃 분 어서... 연습해요... 우리
 해 설 꽃분씨과 양봉씨 연습을 시작하는데 어째 입장이 바뀐 분위기. 찢찢매는 양봉씨다
인간극장 음악

5. 5부

해 설 5부 꽃분씨의 홀로서기-질풍가도
 술취한 사람한테서 꽃분씨를 구한 양봉씨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고. 오늘은 마라톤이 있는 날이다.

PPT3(마라톤대회)

사람들의 들뜬 말들이 오가고

원선 준비!!!! 땅!!!

달리는 음악

1 팀 와! 1등이다 1등 영영영 수고 했어요 정말
 2 팀 와 우리가 해내다니... 1등을 못해 아쉽지만 정말 잘했어요.
 해 설 사람들 다 들어오는데 꽃분씨와 양봉씨, 아직 결승선에서 한참 뒤에 서 있다.
 옥 자 저기 봐요
 꽃 분 우리 그냥 포기해요 더 이상 못 될거 같아요.
 양 봉 꽃분씨 할 수 있어요 이대로 포기 할 순 없잖아요.
 꽃 분 아니요 그만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영영
 양 봉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꽃분씨가 왜 울어요 발목이 아픈건 난데..
 꽃 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픈데

양 봉 가족한테 보여주겠다면서요 홀로서기 위해서 마라톤 완주하는거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꽃 분 그러긴한데 양봉씨 다리가

양 봉 잔말 말고 나 좀 부축해봐요 (질풍가도연주)내가 발은 다쳤지만 눈이 안보이는 건 아니니까 꽃분씨가 부축해주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보여줍시다 까짓꺼. 장애가 있어도 씩씩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구요.

꽃 분 그래요 가요

다같이 파이팅 / 할 수 있어요/ 힘 내요

한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거야 너에게

해 설 이렇게 꽃분과 양봉은 꼴등으로 마라톤 결승점에 들어왔다.

인간극장 음악

1안 -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봄직한 어쩌면 식상하기까지 한 인생? 사랑? 이야기일까?
(나레이션 음악) 그 흔하디 흔한 일상을 꿈꾸는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이다. 누구에겐 당연한 흔한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그 흔한 일상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며 힘을 얻는 이도 있을 것이다. 동행은 서로가 서로에게 걸어가는 길에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